

Assessment of Needs for the Continuing Education of Clinical Psychologists: Focusing on Mental Health Clinical Psychologists

Dong-Ju Lee Sung-Won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The Mental Health Act was first enacted in December 1995 and then revised to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in 2016, as a newly established mandatory provision for continuing education.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is an essential educational initiative for mental health specialists who are directly providing mental health care management services. It was initiated to enhance the quality of mental health services provided to patients and clients even after qualifications have been acquired. However, despite its importance, there are no studies and research papers on needs assessments of clinical psychologists regarding quality management and effective operations of the educational system compared to other professions. Therefore, in this study, we surveyed the needs of five mental health clinical psychologists and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to find out how to operate a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and effectively promote educational particip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overall educational operations, particularly course contents that were considered not helpful or practical, were identified as the most urgent improvements. To promote participation and efficient operation of the educational process, several recommendations were expressed, such as activating online education programs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for those who have not completed their education. Finally, improvements to education are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Keywords: mental health specialists, clinical psychologists, continuing education, needs assessment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정신건강전문요원 제도가 도입되었다(Lee et al., 2017). 이 자격이 탄생하기 전 1973년부터 약 20여년 동안 임상심리 분야의 자격증은 한국임상심리학회가 인준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이 유일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비로소 국가가 보장하는 법적인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아 높은 신뢰성과 사회적 위상을 갖춘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Kwon, 2008; Won,

Choi, Bae, Bai, & Lee, 2018).

이렇듯 정신건강임상심리사 탄생의 근간이 되었던 정신보건법은 2016년 5월 29일 구 정신보건법의 전부개정안(‘정신건강복지법’)이 국회에서 가결됨으로써 전면 개정을 통한 주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주요 변화로는 첫째, 법률의 개정 취지에 적합하도록 기존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도 ‘정신건강임상심리사’로 변경되었다. 둘째,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어 정신건강전문요원 간의 공통업무가 증가하였고, 각 직역의 개별업무도 일부 수정되었다(Won et al., 2018). 그 외에 수련평가에 대한 조항이 구체화되었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변화가 생겨났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보수교육 의무 조항의 신설이다.

보수교육(Continuing Education)이란 일정한 기술이나 학문에 대하여 보충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이나 훈련을 말한다(Bae, Bae, &

[†]Correspondence to Sung-Won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Duksung Women's University, 33 Samyang-ro 144 gil, Dobong-gu, Seoul, Korea; E-mail: karatt92@duksung.ac.kr

Received Aug 27, 2019; Revised Nov 25, 2019; Accepted Dec 5, 2019

This paper is based on the master's thesis of Dong-Ju Lee, and was presented at the 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 April, 2019, Gwangju.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Korea Mental Health R&D Project,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grant number: HM16C1970).

Ryu, 2010). 전문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국내 임상심리학자 자격의 전문성 강화 및 새로운 지식 습득 등을 목적으로 별도의 질관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시행되는 것이 보수교육이다. 또한 보수교육은 그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직업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히게 하고 직업 종사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Song & Lee, 2008), 특히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전문적인 직업일 경우 전문인으로서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정보 및 지식의 습득을 성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Song & Lee, 2008). 또한 보수교육은 전문가의 역량, 실무 수행, 환자의 건강 상태에 있어서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나아가 정신보건 실무의 향상을 가져오고, 이는 곧 환자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Forsetlund et al., 2009).

국외의 보수교육 체계를 살펴보면, 영국은 사회복지사, 정신간호사, 작업치료사, 심리사들을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정하고 이들은 연간 18시간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 보수교육의 내용에 대한 국가적 지침은 없으나 보수교육을 제공하는 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 지침에 부합되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직역과 양성과정, 보수교육 등의 규정은 주(state) 혹은 카운티(county) 별로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유타주의 정신보건전문요원법률을 살펴보면, 면허가 있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심리치료사, 등록된 정신보건 전문간호사 등의 직역이 정신보건전문요원에 해당한다. 이들의 보수교육은 지리적 접근성을 감안하여 주로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고 있으며 National Association for Continuing Education (NACE) 등의 국가기관이나 지역대학에서도 필요한 경우 이를 제공하고 있다(Le, Kim, & Park, 2009). 캐나다 퀘벡주에서 심리학자들의 보수교육을 연구한 결과, 보수교육은 교육 대상자들이 직접 관심 주제를 선택하여 참여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이해하는 것이 교육의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Bradly, Drapeau, & DeStefano, 2012). 또한 미국에서는 임상심리학 분야를 비롯한 심리학 분야의 보수교육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는데, 그 중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보수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의 의무 시행에 대한 이점을 강조하였고, 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무의 도움 정도'를 물었을 때, 대체로 실무로의 전환이 잘 이루어졌으며 교육을 통해 윤리의식이 강화되었다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평가에 대해서는 교육의 지식과 기술습득에 대한 평가보다 만족도 평가를 선호하였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다소 혼재한 양상을 보였다(Neimeyer, Talyor, & Wear, 2009).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 간호와 같은 정신건강전문요

원의 타 직역에 비해 임상심리 직역에서 보수교육에 관해 연구 및 조사된 것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간호 분야의 보수교육 관련 연구는 실태 파악 및 욕구 분석(Ju, 2010; Jung et al., 2007; Kim, 2010; Kim, Suh, Lim, & Min, 2010; Kim & Yoo, 2008; Lee & Choi, 2006; Lee, Kim, & Kim, 2010; Moon, 2000; Shin, 2017; Song & Lee, 2008)부터 교육 활성화 방안(Nam, Shim, & Kwon, 2010), 교육 프로그램 평가(Cho, 2010; Jho, 2013; Song et al., 2006)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Chi, Kim, Hwang, & Jung, 2008; Choi, Lee, & Wang, 2003)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임상심리 분야에 대한 보수교육 관련 연구가 전무한데 이러한 사실은 보수교육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현 보수교육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수련 및 보수교육 표준지침 마련' 연구를 위해 2017년 8월 임상심리 관련 자격증(정신건강임상심리사 1·2급,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1·2급)을 소지한 281명을 대상으로 임상심리전문가의 보수교육에 관련한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Department of Psychology, Duksung Women's University, 2017).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보수교육 실태파악은 이전의 보수교육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능한 것인데,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보수교육이 실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해당 자격의 보수교육 실태파악 조사는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따라서 학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전의 임상심리전문가의 보수교육의 만족도에 대해 묻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현재 학회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임상심리전문가의 보수교육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한 결과, '없음'은 9.3%에 불과하였고, 불만이 있다고 한 사람의 응답 수는 무려 90.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지역적 불균형(35.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커리큘럼의 다양성 부족(33.8%)', '강사진에 대한 불만족(8.5%)', '최신 이슈와의 동떨어짐(6.8%)'이 뒤를 이었다. 따라서 학회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보수교육 운영에 상당 수의 사람들이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상심리전문가 보수교육에 관하여 도출된 교육지역의 불균형, 커리큘럼의 다양화 부족 등에 대한 문제점들은 이후 교육 운영 개선을 위한 주요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보면, 보수교육 시행의 중요성과 함께 그동안 학회 주관으로 시행되었던 보수교육 운영 및 질적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진행되는 임상심리 보수교육에 대한 운영 및 질적 향상을 위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에 대한 욕구 파악이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정

신건강임상심리사의 보수교육은 올해 최초로 법제화됨에 따라 실제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의 교육 현황을 살펴보는 실태조사보다는 앞으로 시행될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욕구조사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욕구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Focus Group Interview (FGI: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채택하였다. FGI는 참여자들 사이에서 유대감 형성을 통해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즉흥적인 질문이나 반응을 허용함으로써 설문조사에서 얻어지는 자료보다 훨씬 다양한 범위의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다 (Kang, Son, & Kim, 2007).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FGI를 주요 방법론으로 채택하는 것은 연구의 주제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보수교육 욕구'라는 특정한 주제를 가진 데다, 이전에 다루지지 않았던 영역에 대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기에 다수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보다 참여자들의 내면적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끌어내면서 보다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적합한 연구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FGI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욕구 내용 및 영역을 토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어느 정도로 동의하는지 알아보고 추가적인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수의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처음으로 시행된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보수교육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교육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욕구를 분석한다.

둘째, 이를 토대로 보수교육에 대한 개선 방안을 파악하고, 나아가 교육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방 법

연구대상

FGI와 온라인으로 실시한 보수교육 욕구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이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신건강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는 2017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조사한 연구결과(Lee et al, 2017)를 참고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정신건

강임상심리사의 주요 활동 분야는 의료기관이 전체의 4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국공립 기관(13.0%), 사설 치료기관(10.2%), 정신건강복지센터(6.7%), 정신재활시설(2.6%) 순이었다. 한국임상심리학회 홈페이지의 홍보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모집공고를 올린 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 중 위의 조건에 맞는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최종 선정 결과, FGI 대상자는 총 5명으로 각각 공공병원 종사자 2명, 종합병원 종사자 1명, 공공기관 센터 종사자 2명으로 구성되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2018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한 결과, 총 51명이 본 조사에 응답하였으며 51명 모두 위의 조건에 부합하여 모든 자료를 분석 시 사용하였다.

연구절차

FGI는 서울 모처의 세미나룸에서 집단 면담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담당자 1인, 연구 보조원 2인과 함께 총 8인이 참여하였다. 면담은 총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사전에 연구 대상자들에게 동의를 받고 모든 면담 내용을 녹음 및 촬영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응답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구글(Google)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설문조사 형식을 이용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제작하였다. 설문지에 포함된 설문영역 및 문항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전 FGI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절차는 덕성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하에 실시되었다.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질적연구의 방법으로 현상학적 접근, 근거이론적 접근, 문화기술지적 접근 등이 있다. 이중 현상학적 접근은 인간의 경험에 대해 연구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경험의 개인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기술(description)을 통해 결과를 도출한다(Kim et al., 1999). 본 연구의 목적은 각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경험을 우선적으로 청취하여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및 욕구를 탐색하고 보수교육 경험에 대한 개인의 의미를 욕구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삶의 경험 및 현상에 대해 연구하고 본질을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는 현상학적 접근을 사용하면, 보수교육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이끌어내고 그 본질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욕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과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FGI는 집단면담의 형식과 반구조화된 면담 및 개방적인 질문형식을 사용하였다. 우선 개인면담이 아닌 집단면

답의 형식을 사용한 것은 이 연구의 목적이 개인의 보수교육 경험과 이에 대한 욕구 도출이므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도출된 공통적인 욕구와 이에 대해 다수가 동의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난 변인이 욕구가 높은 변인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분석 과정에서 다수가 가장 빈번히 언급하고 강조한 것을 근거로 욕구 변인을 도출하였다. 이는 Table 1에도 제시하였듯이, 다수가 빈번히 언급함으로써 강조한 욕구 변인에 대한 진술 횟수를 키워드 옆에 숫자로써 표기하였다.

교육 욕구에 관한 개인의 심층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전체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FGI에 쓰이는 질문을 고려할 때는 토의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참여자들

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공유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 형태를 사용하고, 이후 참여자의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진행된다(Kim, Lee, & Kim, 2016). 또한 현상학적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기술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판단중지(bracketing)를 하는 것이다(Jung,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질문을 하고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관련 내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질문과정에서 발상가능한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종 질문을 확정하기에 앞서 보수교육 관련 주요 개념들을 중심으로 사전 질문지를 작성하였고, 세 차례에 걸친 사전 면담을 통해 최종 질문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보수교육 만족도와 교육내용,

Table 1. Results of FGI analysis using Van Kaam method

Significant statement	Subtheme	Theme	Categories
"I think that the continuing education is absolutely necessary."	Recognize the necessity of education (1)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needs for education (4)	Need for the continuing education
"If we refuse to take the continuing education, we must actually give up this qualification."	Recognize education as an obligation (1)		
"There are a lot of training needs in the field. I think it's an opportunity to learn things like an issue of suicide or addiction that are difficult to master if we do not take the education separately."	Recogniz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1)		
"I think that the education is necessary, but the way of education should be changed."	Aware of the need for education and point out operational problems (2)	Recognize the need but there is a problem the way of operation (2)	
"The education is needed, but the quality of education is too bad."			
"It was so hard all the time I was in training."	Complain of emotional distress (1)	Negative experience of the educational operation (2)	Need for improvement of overall educational administration
"I couldn't move, I couldn't even get a drink."	Point out the narrow space, unkind attitude of the staffs (1)		
"There is clearly a problem with how it works."	Point out operational problems (2)	Recognize the problems in educational operation (2)	
"The operation itself is very immature."			
"I was especially hard to get the education in 8 hours."	Point out excessive educational time (3)	Negative recognition of the educational time (5)	Need for proper educational time
"I thought that while I was getting educated, I wonder why I'm here, it's really hard."			
"I think 8 hours of training time is too much."			
"I think that getting educated like this is about getting busy people to waste their time."	Point out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2)		
"I fully understand that driving 8 hours to get the education is due to a variety of operational problems, but I feel it's quite inefficient in terms of effectiveness of education."			
"However, it seems impossible to reduce the time because the statute has already been enacted."	Recognize that it is impossible to reduce educational time realistically (1)	Need to suggest other options for educational time (1)	

(Continued to the next page)

Table 1. *Continued*

Significant statement	Subtheme	Theme	Categories
"I'd like to use both online and offline for educational efficiency."	Suggestion of online education as an alternative to excessive educational time (2)	Advantages of online education (3)	Need for online education
"If the online education is activated, it will be easier to get an education."			
"I've been getting to the online education for a few years, and even if I get it without caring, there is something that remains in my mind."	Positive experience with online education (1)		
"However, I think that the ratio of online and offline education should be adjusted. Although online is convenient, the effect of education is obviously less than offline."	Recognize the limitations of online education (1)	Limitations of online education (1)	
"They don't seem to be concerned about the need for a basic operating system. They don't think about what they need in real life at all."	Point out the contents of education without considering the needs of the subjects (2)	Limited contents of education (5)	Need for various courses and contents of education
"I hope that the curriculum will be organized after thinking about what those who work in the field really want to know what the contents of education are and what is most important for them to learn."			
"If people with more than 10 years of experience take the 'Psychology Assessment' course, they do not need to take it because it is already known."	Point out the old contents of education (1)		
"I work in a hospital, and the hospital doesn't have much to do in conjunction with the community. But the contents of education are just that."	Point out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 that are not helpful in practice (1)		
"The content of education is similar every year, so there is no expectation for future education."	Point out repeated contents of education (1)		
"When I sit behind, I didn't see any front and couldn't concentrate at all."	Point out poor educational environment (2)	Inappropriate educational environment (4)	Need for appropriate education personnel
"There's only one main screen of the lecture, and the quality of the microphone sound was very bad."			
"It's really suffocating when about 100 people were in the classroom. The instructor was having a hard time, too. I think we need to cut half the number now. Also, It's very easy to do something else because we can't listen it."	Point out excessive number of educational personnel (2)		
"It should be less than 100 people. 200 are too much."			
"But in fact, it's not about the number of people or the room itself, it's about the variety of lectures. If the lectures become diverse, not many people will flock to one classroom."	Suggest a plan to reduce the number of students in education (2)	Improvement plan of educational environment (2)	
"If you grasp demand first through a survey of needs and then open a variety of lectures, the personnel will be divided naturally."			
"Depending on their careers or years, the type of education needs to be diversified."	Emphasis on diversification of educational contents (1)	Improvement plan of curriculum (2)	Need for improvement of curriculum
"I think it will be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places to lecture to care for people in the provinces."	Recognize the need to increase the number and location of education (1)		
"I am not sure what the education of the clinical psychologist held by the association and the mental health clinical psychologist is different. So, I think 'Should I get this education again?'"	Point out the ambiguity of the contents of mental health clinical psychologist (1)	Lack of education as mental health clinical psychologist (4)	

(Continued to the next page)

Table 1. *Continued*

Significant statement	Subtheme	Theme	Categories
“It should recognize first that the clinical psychologist and the mental health clinical psychologist are very different qualification.”	Emphasis on identity as mental health clinical psychologist (2)		
“We lack a sense of identity as mental health clinical psychologists.”			
“I think that the contents related to the legal system and the mutual understanding about the translation included in the common process are important and should be opened every year.”	Emphasis on common curriculum (1)		
“I hope that the proper instructor qualifications will be someone with a lot of experience in the community. I also need people who have worked for a long time as supervisors.”	Emphasize a man of experience in community and supervisors as educational instructors (1)	Emphasize various practical experience such as community, hospital, etc. as a standard for education instructors (2)	Need for appropriate education place selection
“I hope the practitioners will give lectures.”	Emphasize practitioners as educational instructors (1)		
“I also think about using the school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If the professors give lectures, the quality of the lecture and the lecturer will surely be guaranteed.”	Emphasize the benefits of schools, hospitals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2)	Positive recognition of school, hospital institutions (2)	
“In fact, hospitals and graduate schools know the most about the latest knowledge.”			
“We have a duty to do continuing education. Then it is natural that there is a corresponding punishment when the continuing education is not completed.”	Recognize the need for punishment (2)	Positive recognition of punishment if not completed (2)	Need for punishment for non-education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education, I think that the punishment clause is necessary for those who have to get to it.”			
“I think it would be great to have a separate education for a supervisor.”	Recognition of the need for separate education for supervisors (1)	Positive recognition of the separate education for supervisors (4)	Need for separate education for supervisors
“We need to make sure that the supervisors know how to operate the training education.”	Emphasize the role of supervisors in terms of training process (2)		
“They have to be trained in theoretical education, operational guidance, and what they actually need to organize to teach the trainees.”			
“But since there may be training supervisors who are already learning these courses themselves, we need to do a demand survey first on the curriculum that will be included.”	Emphasize the need to organize curriculum after demand survey (1)		
“We need to investigate local preferences.”	Include local preference questions (2)	Recognize the need to include questions about the area (2)	Questions that should be included in addition to the needs survey
“And I think it would be good to investigate ‘How far can you get education from where you live?’”			
“I think it would be nice to ask what courses you would like to focus on, and which courses would be less important.”	Include curriculum questions (1)	Recognize the need to include questions about curriculum (1)	
“I would also like to know about the online education preferences.”	Include online education preference items (1)	Recognize the need for online educational preference items (1)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의 개념들이 도출되었고 이에 따라 최종 질문을 구성할 수 있었다. 실제 FGI에서는 참여자들에 의해 제시된 의견에 따라 구체적인 후속 질문들을 이어가는 반구조화 형태의 면담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FGI의 개략적인 진행과정은 가장 먼저 보수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운영 및 내용에 대한 전반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방식, 교육장소, 교육인원, 교육강사 등의 변인에 대하여 물은 뒤 교육 활성화 및 개선 방안, FGI 이후 다수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설문조사 문항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였다.

Kim 등(1999)에 따르면 질적자료를 수집 후 분석할 때 쓰이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연구자는 연구문제 및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중 흔히 쓰이는 방식은 Giorgi (1970), Colaizzi (1978), Van Kaam (1969) 방식이다. 각 분석 방법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먼저 Giorgi (1970)는 연구대상자의 기술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진술에 있어서 상황적 구조적 진술에서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독특성을 자세히 설명해주며, 일반적 구조적 진술에서는 전체 연구 참여자의 경험이 통합된다. Colaizzi (1978)는 수집된 자료를 전체적으로 강조한다. 참여자의 진술 중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고, 그렇게 ‘구성된 의미(formulated meaning)’에서 ‘주제(theme)’ 및 ‘주제모음(theme cluster)’으로 구성하여 다시 ‘범주화(category)’ 한다. 이 방법은 특히 개인적 속성보다는 전체 연구 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해 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개인의 경험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Van Kaam (1969)은 의미 있는 진술문의 빈도와 우선순위를 찾아낼 수 있는 양적 조사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다. 전체 연구 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고 분석한 내용을 주제와 범주로 조직한다는 점에서는 Colaizzi (1978)와 유사하지만 주제를 기술할 때 부주제(subtheme)를 먼저 선정한 뒤에 이를 통합하여 주제와 범주로 분류하여 조직한다는 점과 참여자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연구자의 의도대로 정리하여 기술한다는 것 등이 다른 점이다 (Cho, Kim, & Martinson, 1992; Kim et al., 1999). 본 연구에서는 FGI를 통해 욕구조사에 관한 개인의 심층적인 의견을 듣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Van Kaam (1969)의 방법을 사용하면 진술문의 빈도와 우선순위에 따라 내용을 분류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참여자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욕구 변인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으며, 특히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진술문을 정리하여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주요 욕구 변인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FGI에서 도출된 모든 내용들은 Wor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

사하였고, 이후 내용 분석에서는 Van Kaam (1969)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Kim 등(1999)이 제시한 것으로써 Van Kaam (1969)에 의거한 구체적인 분석 방법에 따라 본 연구에서 진행한 FGI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자와 녹음한 면담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면서 대상자의 말 그대로를 옮겨 기록한다. 그 다음 기술된 내용에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을 추출한다. 추출한 의미 있는 진술, 즉 원자료에서 공통의 속성으로 묶어지도록 범주화 작업을 실시한다. 이때 원자료에서 공통적인 요소들끼리 모아 부주제를 정하고, 비슷한 속성을 지닌 부주제들을 다시 모아 주제로 모은 뒤 주제의 속성을 전체적으로 모아 범주화한다. 범주화된 자료에서 주제들은 자료의 우선 빈도별의 순위에 따라 나열한다. 그 후 마지막 단계로 분류된 범주화를 통해 분석과 통합을 거친 후 현상에 대하여 기술한다.

결 과

FGI 분석 결과

분석 결과,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주어진 주제에 대한 언급된 빈도 수에 따라 의미 있는 진술에서는 참여자의 발언을 그대로 실었고, 부주제와 주제에서는 의미 있는 진술을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비슷한 주제들로 하위 묶음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범주에서 욕구와 관련된 대표주제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5가지의 다양한 욕구변인에 대한 범주를 도출하였다.

보수교육의 필요성 인식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보수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보수교육 자체는 필요하다’는 의견에 모두 동의하였다. 한편, 교육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자격은 국가가 공인한 자격이기 때문에 법에 명시된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교육의 필요성, 효과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욕구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간에 대한 욕구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참여자들 모두가 동의한 의견은 ‘교육운영상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참여자들은 우선 교육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개선 욕구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였는데, 특히 교육 자체에 대해 ‘듣고 있기가 괴롭다’, ‘정말 힘들다’ 등의 부정적 정서와 함께 교육 진행에 대한 미숙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

렇게 전반적인 교육운영 상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한 후, 그중에서도 어떤 변인이 참여자들 사이에서 높은 욕구를 반영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심층적으로 질문하였다.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된 변인은 교육시간이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상에 명시된 보수교육 필수 이수시간은 각각 공통과정 8시간과 개별과정 4시간인데, 이러한 시간을 일 년 내에 이수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과도하게 느껴질뿐더러 하루 내에 각각 8시간과 4시간을 연속으로 듣는 것은 신체적·정신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교육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미 법 상으로 명시된 사항이므로 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려는 노력보다 명시된 시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주어진 교육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온라인 교육 활성화'에 대한 욕구를 도출하였다. 온라인 교육시행에 대한 욕구가 교육시간에 대한 욕구와 함께 나타난 주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오프라인 교육의 한계점을 인식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방안으로 온라인 교육을 이용하면 장소와 시간에 대한 불편감이 해소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온라인 교육이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 교육 동안에 직접 감시 및 감독하는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 내용을 소홀히 학습할 수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

종합해보면, 적절한 교육시간에 대한 욕구는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었고, 이것이 곧 온라인 교육시행에 대한 욕구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오프라인 교육보다 편리한 만큼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적절한 비율을 조정하여야 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보완 체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내용에 대한 욕구

그 다음으로 높은 빈도로 언급된 욕구는 교육내용에 관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내용 개선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적절한 교육인원, 교육장소, 교육강사에 대한 욕구로 나누어 졌다. 욕구를 표현하기에 앞서 각 영역에서 언급된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내용이 대상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거나, 최신 지식을 반영하지 않고 과거의 교육내용을 반복하거나, 실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등의 제한된 교육내용을 지적하며 교육내용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도출되었다. 또한 교육인원에 대해서는 열악한 교육환경과 공간에 비해 수강인원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는 교육인원을 줄임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로 도출되었다. 그 다음으로 적절한 교육강사 선정에 대한 욕구가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의견으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진출이 비교적 적은 분야인 지역사회 근무 경력자 혹은 수련 감독자, 실무 경력자 등이 적절한 강사의 기준으로 꼽혔으며 추가적으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과 임상심리 분야의 다른 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강사로서 적합하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교육장소에 대한 욕구로 학교 기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실제로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꾸준히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교수와 같은 교육자가 현 교육내용의 최신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부터 도출된 것이었다.

수련감독자를 위한 별도 교육 마련에 대한 욕구

온라인 교육과 함께 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두 번째 욕구는 수련감독자를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가 나타난 것은 수련감독자들이 반드시 교육받아야 하는 과정이 현 교육내용에서 부족하다는 것과 어떤 측면에서는 수련교육에 대한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 미이수 시 처벌에 대한 욕구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 번째 욕구는 교육 미이수 시 가해지는 행정처분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육을 참여 인식이 현저하게 떨어져 교육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는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을 실시하여 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고 참여자들이 교육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 및 강조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 포함 문항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에게 위에서 언급되었던 여러 욕구 변인들 중 FGI 연구 이후에 진행되는 설문조사 문항에 반드시 포함되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 교육 시행과 교육지역, 교육내용에 대한 선호를 묻는 내용이 설문조사 문항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를 모두 종합해 볼 때, 참여자들의 보수교육 욕구는 특히 교육의 필요성 인식, 교육내용 개선에 대한 것에서 가장 높았다. 교육의 필요성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교육이 보다 효

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육내용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욕구가 다양하게 도출됐으며, 구체적으로는 교육 시간, 교육인원, 교육장소, 교육강사 등의 하위 범주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한 51명 모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보수교육 대상자였으므로 분석 시 모든 자료를 사용하였다. 다만, 보수교육을 한 번도 듣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들(6명, 11.8%)이 존재하였는데, 설문조사의 문항 중 '교육의 실무 도움 정도', '현 교육내용에서 부족한 점', '현 교육시간의 적절성 평가', '교육강사/교육인원/교육비의 적절한 기준' 등의 문항은 교육을 한 번이라도 들었을 시에만 응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위의 응답자들이 위의 문항에 응답한 내용은 배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함께 FGI 결과와 유의미하게 관련된 주요 결과 내용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¹⁾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욕구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소지 자격증 종류, 소속기관 종류, 소속기관 소재지, 총 임상경력, 보수교육 이수 횟수 등 총 5가지 항목을 측정하였다. 소지 자격증 종류의 경우, 다중 응답을 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총 51명(1급 42명·2급 9명)이었으며, 따라서 모든 응답자가 본 조사 대상자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기관의

경우,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이 24명(47.1%)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병원(단과 정신병원) 13명(25.5%), 정신보건시설(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3명(5.9%), 일반 상담센터 4명(7.9%), 정신건강증진센터 2명(3.9%) 순이었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사회회복센터, 도박문제관리센터는 각각 1명(2%)이었다. 소속기관의 소재지의 경우는 수도권(서울, 경기)이 26명(51%)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도 지역(13명, 25.5%), 전라도 지역(5명, 9.8%), 강원도 지역(4명, 7.8%), 충청도 지역(3명, 5.9%)이 뒤를 이었다. 총 임상경력의 경우, 크게 세 가지의 범주로 나누었을 때, 1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31명(60.8%)으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18명(35.3%), 20년 이상은 2명(3.9%)이었다. 보수교육 이수 횟수의 경우, 올해 처음 실시된 교육의 공통과정과 개별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은 34명(66.7%)으로 가장 많았고, 공통 혹은 개별과정 한 번만 들은 사람은 11명(21.6%), 한 번도 듣지 않은 사람은 6명(11.8%)이었다.

온라인 설문조사 주요 결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욕구조사의 주요 결과로, 우선 FGI와 마찬가지로 현재 교육참여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궁극적으로 실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한된 교육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Figure 1). 따라서 가장 시급한 교육내용의 개선은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 내용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교육내용에 대한 욕구가 높은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교육내용 관심도에 대하여 물었는데, 첫 번째는 현재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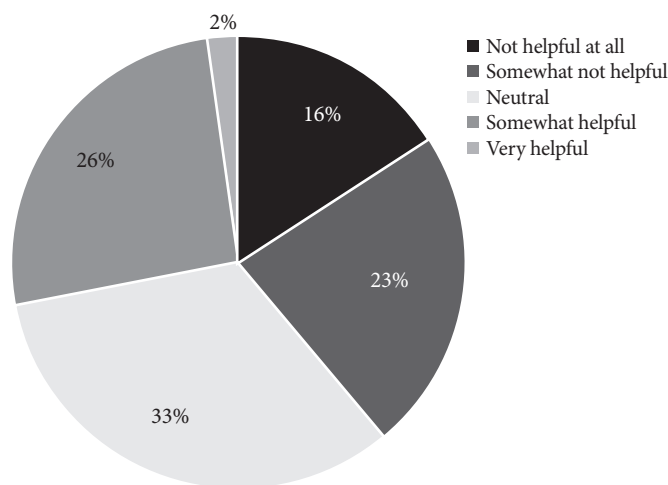


Figure 1. The result of an online survey question 'Do you think the continuing education is actually helpful?.'

1) 설문조사의 전문을 열람하시고 싶은 분은 교신저자에게 요청 바랍니다.

■ Meaning and value of Mental Health Specialists
■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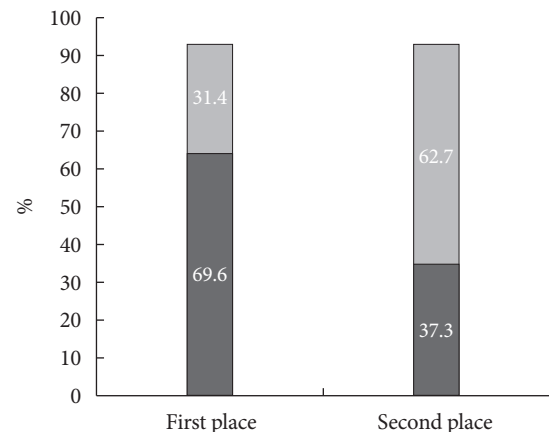


Figure 2. The result of an online survey question 'What subjects do you want to take most in the current common course?.'

- Current knowledge of mental disorders assessment and treatment
- Community related
- Understanding of disaster and psychological first aid
- Psychological understanding and intervention of suicide
- Theory and practice of family, couple, art therapy
- Application and actual of rehabilitation therapy
- Screening, short-term intervention, treatment for addiction problems
-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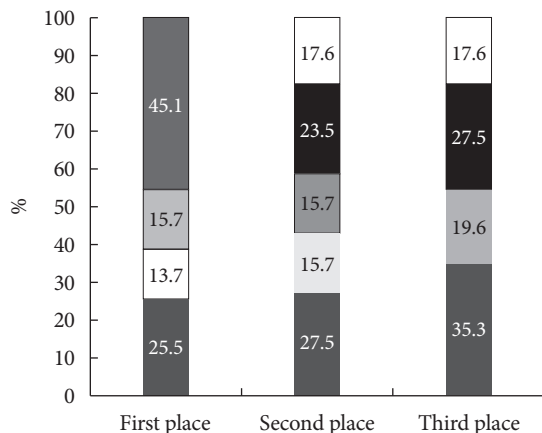


Figure 3. The result of an online survey question 'What subjects do you want to take most in the current individual course?'.

교육내용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순위로 표시하도록 하였고, 두 번째는 현재 진행되는 교육내용 외에 추가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과정 중 먼저 공통과정은 '정신건강복지법의 이해'가 가장 욕구가 높은 과정이었으며(Figure 2) 개별과정에서는 '정신장애 평가 및 치료의 최신지견(1순위)', '자살의 심리학적 이해와 개입(2·3순위)'으로 나타났다(Figure 3). 두 번째로 그 외 추가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과정에 대한 욕구를 자유 응답식으로 물었을 때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최신 이슈를 반영하거나 치료, 심리평가 등에 대한 것과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만의 고유한 법적 지위나 정체성 및 역할을 강조하는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자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 외 FGI에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온라인 교육 실시, 학교 기관으로 교육을 위탁하는 방안,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수련감독자를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대한 동의여부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온라인 교육실시에 대하여서는 동의하는 의견이 78%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시 공통과정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이해'가, 개별과정에서는 '정신장애 평가 및 치료의 최신지견', '지역사회 관련(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지역사회 정신사회 재활,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재활치료 적용의 실제' 순으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구성 시 이를 고려한다면 교육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다음으로 학교 기관으로 교육을 위탁하는 방안에 대하여서는 동의하는 의견이 45%로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희망하는 교육기관 유형이 있는지는 질문에 대하여 '병원', '지역별로 접근 편의성을 고려한 위치(예를 들어, KTX 역사 부근)', '학회 산하 연구회나 지회', '거리적으로 교통의 중심지인 대전' 등의 추가적인 의견이 있었다. 또한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수련감독자를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대해 각각 동의하는 비율이 33%, 72%로 나타났다.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FGI에서 다수가 동의한 것에 비하면 다소 낮은 비율이다. 다른 분야의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소속된 사회복지사의 경우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사회복지사업법 제 5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보수교육 미이수 시 신고 시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Yang, 2016). 따라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보수교육 이수에 대한 의무조항이 2016년 법개정과 함께 새롭게 마련된 만큼, 이후 이수하지 않을 시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지에 대한 논의 또한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련감독자를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 마련의 경우, 어떤 교육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추가로 물었을 때 1순위는 '정신병리(예: DSM-5)', 2순위는 '심리치료', 3순위는 '인지기능평가', '다양한 심리치료', 4순위는 '신경심리평가', 마지막으로 5순위는 '인지기능평가'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후 수련감독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위의 결과에서 1, 2, 3순위로 제시된 과목들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현황 및 욕구를 살펴보기 위해 FGI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타지역의 보수교육 관련 연구결과와 분명히 구분되어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역할 및 정체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욕구였다. 즉, 교육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으로서 주어진 법적 지위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고유의 역할 및 정체성을 강조하여 교육 참여에 대한 개인의 자발적인 동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보수교육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이수 대상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수 대상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교육내용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다. 교육내용의 다양화가 이루어진다면 교육 참여의 동기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들을 기회가 많아지니 자연스레 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실무와의 연계성 또한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에 따라 교육 인원이 분산될 수 있으니 현재 과도하다고 지적되는 교육인원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환경의 개선 또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둘째,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해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각기 다른 환경 및 지역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한 곳에 집합시켜 진행하는 교육은 모두가 만족할 만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주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온라인 교육이 오프라인 교육의 한계점을 보완시킬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온라인 교육 실시에 동의하는 비율이 78%로 매우 높았으며 온라인 교육으로 듣기에 적합한 과정에 대한 수요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교육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Jang, Cho, & Lee (2016)가 수행한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참가자 및 프로그램 특성이 교육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교육 학습내용이 구성원들의 업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되고 도움이 될 경우, 또 강사의 열정과 전문지식이 높을수록 교육만족도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Lee (2012)에 따르면, 온라인교육의 효과에 무엇보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참여자들의 수강 동기라고 하였다. 이에 온라인교육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참여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종합해보면, 온라인 교육 수행 시 참여자들의 수강동기를 높이기 위한 요인들을 사전에 고려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하기를 선호하면서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강과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다. 정신장애 평가나 심리치료 등 실무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과목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1, 2, 3순위로 나타난 것은 개별과정 중 ‘지역사회 관련(지역심리 정신건강서비스, 지역사회 정신사회재활, 지역사회기반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재활 치료 적용의 실제’, ‘재난의 이해 및 심리적 응급처치’ 등이었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교육의 동기수준을 높이고 온라인 교육의 활성화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다음의 의의를 가진다.

첫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원으로서 정신건강임

상심리사의 전문성을 유지 및 향상시키고 환자 및 내담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보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질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이 앞으로 발전 및 향상될 여러 개선사항들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같은 정신건강전문요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와 간호 직역에 비해 임상심리 직역에서는 선행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직역의 보수교육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보수교육 관련 선행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사회복지와 간호 직역에서도 질적 분석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교육 대상자들의 욕구를 파악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직역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와 간호와 같은 직역에서도 욕구조사의 연구 방법 중 하나로서 질적 분석 방법의 유용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첫째, FGI와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중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의견이 FGI에서는 다수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온라인 설문조사는 단지 33%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처벌이라는 의미가 두 조사과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FGI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런 조치가 행해지지 않는다면 교육의 참여가 저해될 것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된 것에 비해, 온라인 설문조사 시에는 해당 부분을 다시 질문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표현하였는데 ‘행정처분’이라는 단어가 다소 설문조사 응답자들에게 부적절하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다. 설문조사 작성법에 따르면, 질문 작성 시 주의해야 할 것은 이해하기 쉬운 문장을 사용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Tak, 2007, p. 84). 따라서 FGI와 달리 설문조사에서 ‘행정처벌’이라는 부정적 단어 사용으로 인해 응답자들이 편향된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FGI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둘째, FGI 진행 중에 참여자들이 준비된 질문에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판단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다. 현상학적 연구 시 연구자의 편향이나 편견이 결과에서 반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흔히 판단중지가 사용된다(Jung, 2000).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전에 임상심리전문가들과 세

차례의 FGI를 진행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보수교육 관련 주요 개념들을 도출하여 최종 질문을 작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질문 영역이 다소 세분화됨에 따라 판단중지에 대한 엄격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세분화된 질문 영역에 대한 답을 하는 면담 형식은 참여자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교육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내용을 다양하게 구성하자는 욕구를 도출하였는데 이러한 논의의 의의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역할과 필수기능에 대한 정의에 대한 논의가 함께 필요할 것이다.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의가 내려진다면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훨씬 수월하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본 연구에서 보수교육에 대한 욕구파악 및 분석을 실시한 것은 이전에 합의되지 않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역할과 필수기능에 대해 현재 자격증 소지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 및 활동내용을 조사함으로써 이를 확인하는 귀납적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차후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이나 필수적 기능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에 맞는 보수교육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는 연구가 수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진출이 많은 병원 및 국공립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욕구파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교적 진출 숫자가 적은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같은 곳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부족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고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일반화하기엔 제한이 따른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차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기관에서 종사하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들의 욕구를 포함하여 보다 풍부한 욕구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겠고, 더 불어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궁극적으로 교육의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관리체계가 제도적으로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Bae, U. S., Bae, Y. J., & Ryu, G. H. (2010). A study on determinants of effectiveness in continuing education for social worke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13, 27-57.
- Bradley, S., Drapeau, M., & DeStefano, J.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inuing education and perceived competence, professional support, and professional value among clinical psychologists.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the Health Professions*, 32, 31-38.
- Chi, S. A., Kim, E. H., Hwang, S. W., & Jung, J. Y. (2008). A study on developing in-service education content frame for children's center supervisor.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53, 1-27.
- Cho, S. H. (2010). A study on the satisfaction degree of the education for social workers. *Journal of Social Sciences*, 16, 89-116.
- Cho, Y. S., Kim, S. S., & Martinson, I. (1992). The experience of parents whose child is dying with canc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2, 491-505.
- Choi, Y. C., Lee, C. S., & Wang, S. J. (200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curriculum for EMT continuing education.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17, 46-61.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Department of Psychology, Duksung Women's University. (2017. 08. 08). *Survey on preparation of standard guidelines for training and continuing of mental health psychologists*. Retrieved from https://docs.google.com/forms/d/1uUcHHsrXh_AT1jAYyHM-G9yGOz8qRo8M4a3QLJ4iEEZc/edit
- Forsetlund, L., Bjørndal, A., Rashidian, A., Jamtvedt, G., O'Brien, M. A., Wolf, F. M., . . . Oxman, A. D. (2009). Continuing education meetings and workshops: Effects on professional practice and health care outcomes.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15(2), CD003030.
- Giorgi, A. (1970). *Psychology as a human science*. New York, NY: Harper & Row.
- Jang, W. H., Cho, Y. B., & Lee, K. H. (2016). The effect of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program on effectiveness of online training in hospitals and moder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Focusing on hospital nurse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1, 379-391.
- Jho, M. Y. (2013). Nurses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evaluating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5, 1-12.
- Ju, S. J. (2010). A study on status and needs of continuing education for school social worker and community education specialist.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7, 59-82.
- Jung, J. E. (2000). The hospital experience of psychiatric patient: A phenomenological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9, 156-169.
- Jung, J. Y., Kim, K. M., Cho, M. S., Ahn, G. S., Song, K. H., Choi, H. J., . . . Hwang, Y. S. (2007). A study on the state of inservice education for dental hygienists and their relevant aware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Dental Hygiene Education*, 7, 73-89.
- Kang, M. A., Son, J. Y., & Kim, H. J. (2007). An exploratory application of the mixed methods research: Application of surveys and focus group interviews for regional public health issue decision making.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1, 415-437.
- Kim, B. H., Kim, K. J., Park, I. S., Lee, K. J., Kim, J. K., Hong, J. J., . . . Lee, H. Y. (1999). A comparison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focused on Giorgi, Colaizzi, Van Kaam methods-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 1208-1220.
- Kim, E. H., Suh, M. H., Lim, Y. M., & Min, M. H. (2010). An analysis on the in-service education for child-care provid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4, 405-438.
- Kim, H. J., Lee, A. R., & Kim, K. W. (2016). Perception on optimal diet, diet problems and factors related to optimal diet among young adult women using focus group interviews: Based on social cognitive theory.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21, 332-343.
- Kim, J. Y. (2010). Status and demand continuing education of the EMTs of the Korean fire depart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14, 13-24.
- Kim, S. C., & Yoo, S. K. (2008). Needs of continuing education for administrators and managers of social welfare agencie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25, 31-49.
- Kwon, J. H. (2008). Report on the 2007 Survey findings on the Korean clinical psychology's major roles and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 571-579.
- Lee, K. Y., & Choi, M. M. (2006).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social work profession of Korea: Challenges and task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2, 1-52.
- Lee, M. H., Kim, K. H., & Kim, M. J. (2010). Survey on perceptions of and demands for in-service education of directors and teachers at child care center.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7, 177-205.
- Lee, S. H., Song, Y. M., Woo, J. Y., Han, J. M., Ryu, M. S., & Hwang, T. Y. (2017). Report on training and current situation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Psychiatry*, 22, 113-119.
- Lee, S. I. (2012).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tructure variable,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satisfaction in online education. *Journal of Learn Media Technology*, 18, 77-94.
- Lee, S. Y., Kim, Y., & Park, K. H. (2009). Improvement of training system for mental health professional and development of their training guidelin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search Rep. No. 11-1351000-000556-01). Seoul: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 Moon, J. H. (2000). A study on the continuing education of dental technician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Dental Technology*, 22, 179-198.
- Nam, J. H., Shim, S. S., & Kwon, S. J. (2010). A study on measures to enhance continuing education for social workers working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4, 113-137.
- Neimeyer, G. J., Taylor, J. M., & Wear, D. M. (2009). Continuing education in psychology: Outcomes, evaluations, and mandate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0, 617.
- Shin, H. U. (2017). A study on status and needs of in-service education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specialists in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s. *Disability & Employment*, 27, 5-27.
- Song, K. J., Park, S. H., Cho, J. S., Kwon, M. K., Park, J. S., Nam, S. N., . . . Kim, M. A. (2006). A study on the nurse performance appraisal in a university-affiliated hospital.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2, 97-108.
- Song, M. Y., & Lee, S. I. (2008). The analysis on the in-service education realities and need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s' employee for the handicapped. *Korean Journal of Care Work*, 9, 85-116.
- Tak, J. K. (2007). *Psychological test: Understanding development and evaluation methods*. Seoul, Korea: Hakjisa.
- Van Kaam, A. (1969). Existential crisis and human development. *South African Journal of Pedagogy*.
- Won, S. D., Choi, S., Bae, G. Y., Bai, D. S., & Lee, J. S. (2018).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the Korean clinical psychologists as mental health professional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7, S13-23.
- Yang, J. Y. (2016). *Effects of the license enforcement system on dental hygienist's participation in follow-up training* (Doctoral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Suwon, Korea.

국문초록

임상심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들의 보수교육 욕구조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을 중심으로

이동주·최승원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995년 12월 최초로 제정된 정신보건법이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보수교육 의무조항이 최초로 신설되었다. 보수교육은 자격 취득 이후에도 전문성 유지 및 향상과 환자 및 내담자에게 제공하는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직업인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는 필수적인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보수교육은 타직역에 비해 교육의 질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의 근간이 되는 실태조사나 욕구조사에 대한 연구 및 논문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보수교육의 운영과 교육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5인과 Focus Group Interview 형태로 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 특히 실무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제한된 교육내용이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교육 참여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온라인 교육 활성화,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벌 등의 여러 의견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육의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보수교육, 욕구조사